

광주복지재단 '쌍끌이' 특정 감사

복마전 논란에 시의회 이어 시청도 감사 착수

채용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광주복지재단에 대해 광주시의회에 이어 광주시도 특정 감사에 나선다.

광주복지재단은 사상 초유의 '쌍끌이' 감사를 받게 됨에 따라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해

졌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오는 6~12일 조직, 예산, 인사, 계약 등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시는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재단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

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도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특별 감사'인 행정 사무조사를 의결했다.

오는 14일 본회의를 거쳐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 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단체 사무 중 특별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 감사와는 별도로 실시되는 특별 감사의 성격

된다.

복지재단은 최근 행정사무 감사에서 사무처장과 계약직 채용 규정 위반, 매점 불법 전대, 감사자료 허위 제출 등 의혹이 불거졌다.

광주시의회의 행정 사무조사는 2006년 교육청 기자재 납품 비리, 2011년 교육청 인사·계약 비리, 2012년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캠코) 사기 사건에 이어 4번째다.

/황애란 기자



김영록 지사 도정 유공자 시상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도정 유공자를 시상하고 있다. 응급의료 발전, 마을 숲 콘서트 공모 우수작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유공,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 시군, 산림행정종합평가 우수 시군, 올해의 영웅소 방관, 공무원 우수연구 모임, 직장문화 혁신 우수부서에 표창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농기원, 전국 첫 농업공존형 태양광 모델개발

한국전력연구원 공모선정... 2021년까지 공동연구

전남농업기술원이 전국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와 농산물을 병행 생산하는 농업공존형 태양광 모델 개발에 나선다.

전남농기원은 농업분야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을 준비, 올해 한국전력연구원의 연구

개발(R&D) 공모과제에 선정됐다.

전남농기원은 연구비 14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2021년까지 한국전력연구원,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LG전자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한국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기간 고도상향 구조의 유틸리티급 농업공존형 태양광 개발사

업'은 1MW 이상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다.

1982년 독일에서 시작된 이 공법은 시설 규모가 커 농기계 작업 등 농사와 태양광발전 운영 병행할 수 있게 설계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통해 2030년 국내 전체 전력량의 20%인 63.8GW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48.37GW(풍력 16.5

GW, 태양광 30.8GW, 기타 1.07GW)를 추가로 생산할 계획이며 농경지 등에 태양광 10GW의 전기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남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4일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2021년까지 비, 보리, 콩 등 10개 작목을 대상으로 수량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에너지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농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중국 저장성과 20번째 한·중포럼

목포서 개최...고령화 등 양 지역 현안 논의

전남도는 중국 저장성과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4일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20번째 한·중포럼을 개최했다.

'제20회 한중포럼'에는 도와 시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고, 저장성에서는 인민정부 가오이 부처서장

을 단장으로 도시농촌기획설계 분야 전문가 등 6명이 방문했다.

포럼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대도시 집중화·고령화·저출산 등에 따른 농촌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 등 양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도시기반연구소장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방향'을, 천만화 저장성 도시농촌기획설계연구원 원리2소 부소장이 '3대 유산 연결지의 재생과 문화부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함평군 석양마을 주포권역 활성화' 사례와 '저장성 항저우 기차역 주변의 구도시 개발' 성공사례 발표도 이뤄졌다.

포럼에 앞서 저장성 대표단은 성공

사례 지역인 함평 주포권역 다목적센터와 오토캠핑장, 한옥민박촌 등 전남 지역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 현장을 둘러봤다.

선정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중국 저장성과의 우호교류 협력이 20년째 활발히 유지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포럼을 통해 두 지역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가꾸는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빛고을 김장대전 '대박났네'

전국서 주문...김치 원·부재료 120여톤 예약·판매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이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은 2016년부터는 매년 100t 이상씩을 판매하면서 광주김치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김장대전에서는 11월22일부터 12월3일까지 김장김치 예약, 현장 판매에서 120여t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장대전 기간인 12월16일까지는 목표량인 180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014년 44t, 2015년 55t에 그쳤던 것이 2016년에 106t으로 급증했고, 2017년에는 140t을 판매하는 등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광주 김치'의 인기는 전국적이다.

3일에는 부산에서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광주를 찾아 김장김치 체험에 참여하는 등 서울, 경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발길이 모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김치축제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해 온라인 접수도 받고 있어 20~30대 젊은 층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김장대전이 인기몰이를 하는 것은 광주시의 김치 산업을 위한 꾸준한 노력 덕분이다.

시는 전라도 김치 맛을 유지하면서도 타 지역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맛있는 김장 레시피를 개발하기 위해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축제 대동령상 수상자가 함께 김장 공동 레시피를 개발했다.

이밖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연말 나눔행사를 김장김치로 하는 기관·단체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기부문화 조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보성 다향울림촌·장성 별내리마을 전남도 '12월 체험·휴양지' 선정

전남도가 추천하는 12월 여행하기 좋은 전남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보성 '다향울림촌'과 장성 '별내리마을' 등 2곳이 선정됐다.

보성 울포솔밭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다향울림촌은 '독량만권역 활성화 센터'를 갖추고 관광객에게 숙박과 다양한 체험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1층에는 녹차 체험시설과 함께 족욕 카페가 있으며 2층과 3층은 전 객실이 바다 전망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이달 중순부터 보성 차밭 빛 축제가 열리면서 다향울림촌에는 울포솔밭 낭만의 거리가 조성된다.

장성 별내리마을은 전남과 전북 경계인 북하면에 있다.

백양사·남창계곡·입산산성·내장산 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4계절 내내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다.

내장사에서 출발해 원적암·사랑의 다리 등을 거쳐 일주문에 다다르는 1시간 30분 가량의 탐방코스인 남창골 자연관찰로는 완만한 경사로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별내리마을은 별을 관찰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곳으로, 도심에서는 즐기기 힘든 천문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별자리를 찾고 행성을 관찰할 수 있어 농촌 자연과 더불어 도시민의 감성을 자극한다. /정근산 기자

'행복동지사업' 주거복지 최우수기관

전남도, 민·관합동 취약계층 348가구 지원 '모범사례'

전남도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 온 '행복동지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2018년 주거복지 혁신대상' 평가에서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복동지사업은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단순한 미관개선, 도배, 장판 교체를 넘어 주택구조, 전기, 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과 단열, 누수,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

실질적 주거복지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삼성전자 광주사회공헌센터 등 민·관 합동으로 약 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전라남도건축사회 등의 재능기부를 받아 주거약자 348가구에 대한 행복동지사업을 추진했다.

김태식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시작한 행복동지사업이 주거복지사업 선도모델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내년에는 11억원의 복권기금을 확보, 총 25억원의 예산으로 200여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